

“미션 캡 코르스”: 블랑팡이 후원하는 6 번째 곰베사 원정

곰베사 원정의 창립 파트너인 블랑팡이 다이버이자 생물학자, 심해 포토그래퍼인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가 이끄는 6 번째 여정을 후원했다. “미션 캡 코르스(Mission Cap Corse)”라 이름 붙은 곰베사 VI 는 캡 코르스 해안가 인근 지중해를 덮고 있는 100m 수심에 위치한 “산호 링(coral rings)”에 얽힌 비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월 20 일 화요일, 리구리아(Ligurian) 해 물 속에서 20 일을 보낸 원정팀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잠수부들은 모나코에 정박했고 그곳에서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 마크 A. 하이예크(Marc A. Hayek)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2011 년 IFREMER(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가 진행한 캡 코르스 해안가에서의 지도 작업 동안 115~140 m 사이 해저에서 규칙적으로 윤곽을 그리는 수천 개의 낫설고 완벽한 원형 대형이 모니터 스크린에 등장했다. 한 번도 탐험한 적 없는 이 거대한 산호 환초(각각의 지름이 30m 에 이른다)는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 그리고 왜 지중해에 자리한 것일까?

이 질문을 비롯해 더욱 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로랑 발레스타와 곰베사 팀의 다이버 3 명은 INPP(National Institute of Professional Diving)의 바지선에 마련된 *바티예일 정거장(Bathyale Station)*으로 향했다. 이제 유명해진 이곳에서 2021 년 7 월 1 일 원정이 시작되었다. 2019 년 곰베사 V 동안 그들은 처음으로 폐쇄 회로 호흡기를 이용해 아마추어 심해 잠수와 포화 잠수를 결합할 수 있었다. 이 기술 덕분에 올해 잠수부들은 20 일간 매우 긴 잠수 시간 동안 캡 코르스와 아그리에이트 해양 생태 공원(Agriate Marine Natural Park)의 심해를 탐험할 수 있었다. 원정대는 과학적 도전 외에도 생리적 도전을 이겨내야 했다. 네 명의 전우들이 인간에게는 다소 가혹한 5 제곱미터 규모의 압력을 조절한 공간 속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다. 로랑 발레스타는 자신의 여정에서 지중해의 “산호 링(coral rings)”을 발견하며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이미지들을 가져왔다. 미션을 통해 이러한 집합체가 가스 방출이나 담수 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랑팡은 계속 진행중인 이 프로젝트가 이룩한 성취에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랑 발레스타는 이미 2021 년 5 월 코르시카 섬(Corsica)으로 가 프랑스 지중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 종인 앤젤샤크(angel shark)를 연구했다. 2020 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 활동의 중단이 척추 동물과 해양 무척추동물 개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특별한 미션 동안 로랑 발레스타는 상어와 가오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이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블랑팡과 곰베사 원정

블랑팡의 후원을 받아 로랑 발레스타가 이끈 다섯 번의 원정에 이어진 곰베사 VI는 희소하고 접근하기 힘든 지구상의 해양 생태계 일부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모로(Comores)에서 “곰베사(Gombessa)”로 알려져 있고, 역사가들이 7 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믿은 고대 물고기인 실러캔스(coelacanth) 어류를 찾아나선 곰베사 미션은 2013 년 인도양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두 번째 원정은 2014 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파카라바(Fakarava)에서 이루어졌다. 목적은 마블드 그루퍼(marbled groupers)의 응집에 대한 수수께끼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 2015 년 세 번째 원정에서 로랑 발레스타는 남극 대륙으로 향했고, 지구 온난화로 위협받고 있는 이곳 해양 생태계가 품고 있는 풍성한 생물들을 최초로 포착했다. 2017 년 네 번째 곰베사 원정은 다시 한번 파카라바로 떠났고, 그곳에서 환초 남쪽에 서식하고 있는 700 여 마리의 그레이 리프 상어(gray reef sharks)의 사냥 습성을 연구했다. 네 번째 미션에서는 블랑팡의 기존 지원금과 더불어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첫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OC)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매출에서 나온 것이었다. 네 번째 원정에서는 마블드 그루퍼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

로랑 발레스타는 다섯 번째 원정에서 프랑스 해안가 지중해로 떠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바닷속 비밀을 연구하고, 촬영하고, 밝혀냈다. BOC II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 매출에서 파생한 추가 지원금 덕분에 이 미션 동안 곰베사 팀은 세계 최초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얇은 바다 임무를 위한 포화 잠수와 전자식 호흡기 잠수 기법을 결합한 것이다. 곰베사 VI 를 거치며 더욱 발전된 이 독보적 기술 덕분에 잠수부들은 28 일 동안 60~145m 수심에서 총 400 시간의 잠수를 할 수 있었다.

로랑 발레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블랑팡의 후원은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 인 마크 A. 하이에크와 로랑 발레스타와의 만남 이후 이뤄졌다.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잠수부이자 공인된 전문 잠수부인 마크 하이에크는 로랑의 재능,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프로젝트는 확장되었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범접하기 어려운 해양 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크 하이에크는 덧붙였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로랑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로랑 발레스타는 말했다. “저는 블랑팡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진실성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블랑팡은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과 잠수 기법 개발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랑팡이 곰베사 프로젝트에 가치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곰베사 원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gombessa-expeditions.com 를 방문하면 된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BOC)

블랑팡에게 있어 전 세계 바다 탐험과 보존은 중요한 가치다.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위치인 피프티 패덤즈의 70 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블랑팡은 이 소중한 자원을 아끼는 탐험가, 사진가, 과학자, 환경보호론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블랑팡으로 하여금 바다와 관련된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후원하도록 이끌었다.

최근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는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정, 로랑 발레스타의 곰베사 프로젝트, 이코노미스트가 개최하는 월드 오션 이니셔티브(World Ocean Initiative), 매년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는 월드 오션스 데이(World Oceans Day) 등 해양 관련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에 투자해왔다.

현재까지 블랑팡이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후원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 면적이 4 백만 km² 이상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